해묵은 제2공항 갈등 풀 수 있을까

도의회 갈등특위 오는 12·13일 심층토론회 개최
특위 활동 마감 임박… 12월까지 갈등 해결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를 이달 중 개최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갈등특위)는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12월까지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하는 등 갈등 문제를 매듭짓자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2공항의 갈등해결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6일 도의회 갈등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를 오는 12~13일 2일간 개최한다는 일정을 지난 5일 제주도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에 전달했으며 일정에 대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된 토론회 내용을 살펴보면 1일 차 토론주제는 ADPi의 19개 권고안 중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는 4가지 항목(주기장 확대, 독립 평행 항로 신설, 교차활주로 운영, 항공기간 분리간격 축소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2일 차에는 기타 기존 공항 활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가 도민의견수렴 방안을 두고 여전히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토론회 개최는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갈등특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토론회 개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철 갈등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내용과 일정 등과 관련해 비상도민회와 제주도에서는 여러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예정대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보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성산읍 신산리장)는 "갈등특위로부터 토론회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토론회에는 참석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갈등특위 등과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헌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도의회, 국토부의 협의에 따른 합의 내용으로 토론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갈등특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장관 교체설… 제2공항 영향은?

'원년 멤버' 연내 개각 가능성
현실화 하면 새로운 변수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분위기 일신을 위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도 개각 명단에 포함될 경우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된 뒤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 해 온 '원년 멤버'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의 경우 지난해 후임자로 지명된 최정호 후보자의 낙마로 뜻하지 않게 자리를 지켜 연말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사업인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로 김 장관 체제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해 3월 제주도 국회의원과 가진 당정협의를 통해 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이같은 당정 협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후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국정 성과 도출에 진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각이 현실화 될 경우 제2공항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 전략,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국기자

"주민참여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필요"

도의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 지원체계 구축 제언

코로나19 장기화 속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 특성을 담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특성화·브랜드 전략과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주 웰니스 관광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공동 주관한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 전략,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 주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주 웰니스 관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웰니스 관광 과제로 ▷제주 웰니스 관광자원 발굴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웰니스 융복합 관광 추진 ▷웰니스 지역관광 모델 개발 ▷주민참여형 웰니스 관광 사업 개발 ▷웰니스 관광인력 양성 및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제주 웰니스 관광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도내 관광자원은 모든 웰니스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제주도의 특성이 나타나는 자연자원, 기후, 문화 등을 반영해 웰니스 관광자원으로 발굴해야한다"면서 "제주 웰니스관광이 지속가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관·학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태수 단국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웰니스관광의 동향과 제주의 시사점' 주제 기조강연에서 제주 웰니스관광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강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력 양성 ▷관광 수용태세 및 환경개선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만 3세 아동 6029명 전수조사
소재·안전 확인해 복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까지 만 3세 아동(2016년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나이로,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만 3세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2016년도 출생아동 6029명(지난해 기준) 가운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아동 342명을 중심으로 조사 할 계획이다. 해외출국 아동에 대해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매 3개월마다 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시 거주지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맞춤형복지 담당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소상공인·자영업자·중기 지원 강화 나선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면서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해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다"며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경제 반등의 중심,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全州李氏 桂城君派 Jeju
濟州入島祖 時享祭 奉行 案內

전주이씨계성군파 제주 입도조이신 팽형조 및 득춘조 **2020년도 시향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아 정부시책에 호응하면서 임원 이사 중심으로 최소한 간소하게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친가족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일자 : 2020년 10월 9일(금요일)

관 명	司馬公 彭馨祖 (팽형조)	靖社功臣 得春祖 (득춘조)
시 간	11시	10시
장 소	다호 묘역	덕지답 묘역
초헌관	德允 (6繼林派 元老宗親)	連奉 (道宗親會 顧問)
아헌관	貞雨 (2興林派 會長)	平浩 (4就林派 殷壽祖 會長)
종헌관	永培 (7盛林派 任員)	禎雨 (典禮理事, 6繼林派)
대축관	尙奉 (典禮副會長)	尙奉 (典禮副會長)

단, 우천시에는 제주계성회관에서 봉행함.

※ 연락처 회관사무실 (064) 724-0102, 사무국장 (010) 2699-3779

全州李氏桂城君派濟州特別自治道宗親會
會長 李哲憲